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기초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와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

Moderating Effects of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and Empathy Based on the 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

신유림¹ 김윤수²

Yoolim Shin¹ Yoonsoo Kim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based on the 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

Methods: Participants were 216 preschool children including 116 boys and 100 girls from day care centers and preschools located in Chungchung province and Seoul. EAS was used to measure the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The children's empathy quotient was used to measure empathy. Mothers reported their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Result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empathy and maternal suppression of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was significant only for the children with high levels of negative emotionality. Moreover, the magnitude of association between empathy and maternal acceptance of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was greater for high levels of negative emotionality.

Conclusion/Implications: It was concluded that these findings supported the 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

key words negative emotionality, empathy, maternal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 본 연구는 2018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1 제1저자(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e-mail : yoolim@catholic.ac.kr)

2 공동저자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졸업

I. 서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주요 환경 변인으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민감성의 정도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Slagt, Dubus, Dekovic, & van Aken, 2016). 최근 발달학자들은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하여 진화이론에 기초한 차별적 민감성 모델(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을 제안하였다. 차별적 민감성 모델은 부정적인 환경과 함께 아동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한다(Belsky & Pluess, 2009). 차별적 민감성 모델은 취약성을 발달적 유연성, 민감성 또는 가소성의 개념으로 본다. 따라서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의하면 스트레스에 취약한 아동이 부정적 양육을 경험하면 부적응을 보일 수 있으나, 반대로 긍정적 양육을 경험하면 높은 발달 성취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

차별적 민감성 모델이 등장하기 전에 개인차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모델은 병적 소질-스트레스 모델(diathesis-stress model)이다. 이 모델에서는 기질과 같은 내적 요인은 취약성으로 보고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과 같은 요인은 스트레스로 본다(Yaman, Mesman, van Ijzendoorn, & Bakermans-Kranenburg, 2010). 취약성을 지닌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과 비교하여 환경 영향에 상관없이 적응에 어려움이 높고 환경의 스트레스가 없을 때 얻는 이익은 적은 반면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는 부적응의 위험이 더욱 높다(Yaman et al., 2010). 즉 이 모델은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취약성을 강조하는데 일부 아동들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런 특성이 없는 아동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하게 되면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Rabinowitz & Dravick, 2017). 특히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성과 낮은 수준의 의도적 조절과 같은 기질 특성을 지닌 아동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취약성이 활성화되어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다(Rabinowitz & Dravick, 2017).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병적 소질-스트레스 모델이 기질과 양육 간의 상호작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제한적인 설명만을 제시한다고 보았으며,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기질 특성 중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민감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보았다(Aron, Aron, & Jagiellowicz, 2012). 부정적 정서성은 환경이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다양한 환경 경험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Pluess & Belsky, 2010). 최근 5년 동안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입증한 선행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도 부정적 정서성은 잠재적인 민감성의 지표로 나타났다(Slagt et al., 2016).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낮은 유아와 비교해볼 때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나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이예진, 신유림, 2015). 교사의 민감성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에게만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luess & Belsky, 2010).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지지해주는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까다로운 기질 아동은 순한 기질 아동과 비교하여 양육의 질이 낮은 조건에서는 문제행동과 학업에서 부적응을 보였으나, 양육의 질이 높은 조건에서는 적응능력이 뛰어났다(Bradley & Corwyn, 2008).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높은 유아가 어머니로부터 반응적인 양육을 받게 되면 외현적 문제행동의 정도가 낮았으나 반대로 반응적이지 않은 양육을 받게 되면 외현적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았다(Davidov & Grusec, 2006).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의 친밀감과 유아의 자기조절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

구에 의하면,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에게만 두 변인 간에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순한 기질의 유아에게는 이러한 관련성이 없었다(Feldman, Greenbaum, & Yirmiya, 1999). 유아기 외현적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추적한 종단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은 까다로운 기질을 지닌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Mesman et al., 2009). 어머니 양육의 민감성 수준에 따른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 아동의 문제행동을 비교해본 결과, 어머니가 민감성이 낮은 양육을 하는 경우에 까다로운 기질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정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어머니가 민감한 양육을 하게 되면 순한 기질의 아동에 비해 까다로운 기질 아동의 문제행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Roisman et al., 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 간 관련성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은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높은 유아의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Kim & Kochanska, 2012). 또한 부정적 정서성이 수준이 높은 아동의 경우에 부모가 통제적 양육을 하면 외현적 문제행동의 증가율이 높았으나, 민감하고 온정적인 양육을 하게 되면 외현적 문제행동의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van Aken, Junger, Verhoeven, van Aken, & Dekovic, 2007).

이상과 같이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입증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발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문제행동 수준의 감소 및 증가 여부를 측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Belsky와 Pluess(2009)는 문제행동 수준의 감소가 긍정적인 발달 결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차별적 민감성 모델은 특히 긍정적 발달결과를 직접 측정할 때 입증되기 쉬우므로 공감능력 및 친사회성과 같이 사회정서 유능감을 반영하는 변인을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공감은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에 관심을 보이고 이에 적합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다(Eisenberg & Fabes, 1990). 공감은 유아기 또래 관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능력으로 공감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격성 및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Lovett & Sheffield, 2007). 공감은 유아기 도덕성 발달에 필요한 핵심능력이며,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Spinrad & Stifter, 2006). 공감은 영유아기에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18개월에서 3세 사이에 유아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위로하는 행동을 보였다(Svetlova, Nichols, & Brownell, 2010). 3, 4세가 되면 유아들은 실험 상황에서 실험자가 연출하는 어려움에 위로하는 말과 행동을 보였다(Dunfield & Kuhlmeier, 2013).

공감능력은 연령에 따른 성숙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보이는 온정, 통제 및 반응성과 같은 양육태도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Kiang, Moreno, & Robinson, 2004). 최근에는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정서 유능감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어머니의 정서 사회화 역할이 강조되면서 자녀의 정서표현수용태도의 영향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자녀의 정서표현을 수용해주는 어머니는 자녀의 슬픔 및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인정하고 편안하게 표현하도록 해주며 이러한 정서의 원인에 대하여 자녀와 함께 이야기한다(Valiente et al., 2004). 반면에 자녀의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어머니는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는 억압적 태도를 보인다(Valiente et al., 2004). 아동의 공감능력은 아동이 자신의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고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며

경험하는 가정환경에서 키워질 수 있다(Barnett, Howard, King, & Dino, 1980). 특히 부모가 아동의 정서 표현을 억제하기보다 수용해주면 아동은 자신의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어 자신보다 타인 지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감능력이 발달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아동의 정서표현을 수용해주면 아동은 정서에 대한 지식과 정서를 이해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존 가트맨, 남은영, 2007; Brophy-Herb et al., 2011), 이러한 정서 지식과 이해능력은 공감반응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아동의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부모는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시키게 되어 아동의 공감능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발달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 및 억제 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재변인을 포함한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Valiente 등(2004)은 부모의 정서표현수용과 아동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는 기질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해볼 때 공감발달에 대한 연구에 아동의 기질과 같은 특성을 중재변인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와 아동의 공감 간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Valiente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기초하여 부정적 정서성을 민감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설정하고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 및 억제와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기 공감 발달에 대한 어머니 양육 영향이 가정의 정서사회화 측면에서 탐색한 점과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문제행동과 같은 부적응 측면이 아닌 공감능력이라는 정서적 유능감 측면에서 탐색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기초해볼 때,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낮은 유아와 비교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억제는 공감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정서표현수용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가 유아의 공감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공감능력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공감능력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억제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충청도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4세 유아 216명

이며, 남자는 116명(54%), 여자는 100명(45%)으로 구성되었다. 만 4세는 타인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하는 마음이해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Schaffer, 2008) 이 연령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아의 공감능력과 기질적 특성인 부정적 정서성을 신뢰롭게 보고할 수 있는 어머니를 정보원으로 선정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보면 전일제 근무자가 98명(45.4%), 시간제 근무자는 36명(16.7%), 전업주부는 79명(36.6%)이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보면 대학교 졸업이 125명(57.9%), 고졸 이하는 76명(35.1%), 대학원 이상은 11명(5.1%) 순서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300-500만원 미만인 90명(41.7%), 300만원 미만이 56명(26%), 500만원 이상이 55명(25.5%) 순이었으며 무응답이 15명(6.9%)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 정서표현수용 및 억제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태도는 어머니 보고법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감정코치 척도(존 가트먼, 남은영, 2007)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표현수용 6개 문항(예: 아이가 슬퍼할 때 엄마가 그 기분을 이해한다고 알려준다.)과 정서표현 억제 6개 문항(예: 화가 난다고 해서 아이가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을 포함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4점 척도이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 점수가 높을 경우 유아의 슬픔 및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인정하고 편안하게 표현하도록 도우며 정서의 원인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어머니의 정서표현억제 점수가 높을 경우 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인정하지 않으며 표현을 억압하고 처벌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정서표현수용의 Cronbach's α 는 .78이었고, 정서표현억제의 Cronbach's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공감능력

유아의 공감능력은 어머니의 보고법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Auyeung 등(2009)이 개발하고 고희갑, 심숙영 그리고 임선아(2015)가 수정 번안한 EQ-C(Children's version of the Empathy Quotient)를 사용하였다. EQ-C 척도는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과 사회적 반응의 3개 하위척도의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예: 다른 사람이 울거나 아파하면 마음 아파한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평정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3)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보고법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박혜원(2012)이 수정 번안한 척도에서 정서성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예: 잘 우는 편이다. 감정적으로 예민하다.) 설문지는 어머니가 평정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반응하는 Likert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

을수록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6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장과 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기관에서 자료 수집이 실시되었다. 담임교사는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총 303부 중에서 235부가 회수되었고 정보가 누락된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216부가 자료로 분석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어머니 정서표현수용태도와 공감능력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를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은 4점 척도에서 2.22이었고, 공감능력은 평균은 4점 척도에서 3.13로 나타났다. 4점 척도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의 평균은 3.04이었고 억제는 3.06였다.

표 1.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216)

변인	평균	표준편차
부정적 정서성	2.22	.50
공감	3.13	.23
정서표현수용	3.04	.22
정서표현억제	3.06	.22

측정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성은 공감과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정서표현억제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공감은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정서표현억제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N = 216)

변인	1	2	3
1. 부정적 정서성			
2. 공감	-.18*		
3. 정서표현수용	-.34***	.78***	
4. 정서표현억제	.41***	-.48***	-.58***

* $p < .05$, *** $p < .001$.

2.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 및 거부와 유아의 공감능력 간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과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의하면 1단계에 투입된 변인 중 어머니 정서표현 수용이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beta = .82, p < .001$) 공감능력을 62.7%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투입된 상호작용변인이 유의미하였으며 공감능력을 1.3%의 추가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어머니 정서표현수용과 유아의 공감 간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 (N = 216)

단계	변인	β	R^2	ΔR^2	F
1	정서표현수용	.82***	.62		91.56***
	부정적 정서성	.09			
2	정서표현수용	.33	.64	.02	64.09***
	부정적 정서성	-1.35			
	정서표현수용 X 부정적 정서성	1.36*			

* $p < .05$, *** $p < .001$.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점수에서 +1SD와 -1SD를 기준으로 부정적 정서성 수준의 상·하집단을 구분하였다. 상·하집단별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성 하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은 공감에 미치는 영향은 $\beta = .78 (p < .001)$ 이었다. 부정적 정서성 상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은 $\beta = .82 (p < .001)$ 로 나타나 하집단과 비교해볼 때 상집단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영향에 대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억제와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1단계에 투입된 변인 중 어머니 정서표현억제는 유의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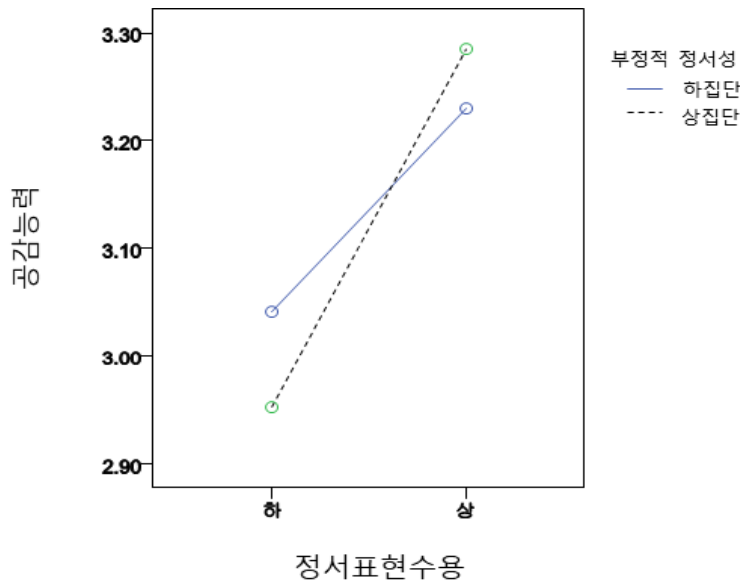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 정서표현수용과 유아의 공감 간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

변인이었으며($\beta = -.41, p < .001$) 공감능력을 17.6%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투입된 상호작용변인이 유의미하였으며($\beta = -1.92, p < .01$) 공감능력을 5.5% 추가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억제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어머니 정서표현억제와 유아의 공감 간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 ($N = 216$)

단계	변인	β	R^2	ΔR^2	F
1	정서표현억제	-.41***	.17		11.62**
	부정적 정서성	-.01			
2	정서표현억제	.68	.23	.05	10.82***
	부정적 정서성	1.14**			
	정서표현억제 x 부정적 정서성	-1.92**			

** $p < .01$, *** $p < .001$.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점수에서 +1SD와 -1SD를 기준으로 부정적 정서성 수준의 상·하집단을 구분하였다. 상·하집단 별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성 하집단의 경우에 어머니의 정서표현억제는 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15$ ns). 부정적 정서성 상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정서표현억제는 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beta = -.56, p < .001$). 즉 어머니가 정서표현을 억제할수록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유아의 공감능력이 낮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영향에 대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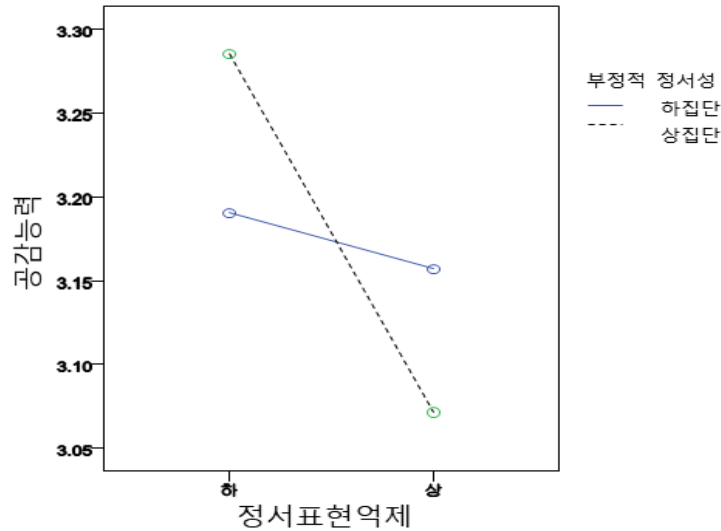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 정서표현억제와 유아의 공감 간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기초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 및 억제와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영향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은 유아의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아동과 비교하여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더 높았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가 아주 높은 조건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아동의 공감능력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병적 소질-스트레스 모델에 의하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 특성인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이런 특성이 없는 아동과 비교하여 양육환경에 상관없이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Yaman et al., 2010). 반면에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을 민감성 또는 가소성 요인으로 해석하므로 긍정적 양육을 받은 경우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아동과 비교하여 더 높은 발달 성취를 보일 있다는 점에서 병적 소질-스트레스 모델과 차별화된다.

자녀의 정서표현을 수용해주는 어머니들은 자녀가 슬프거나 화가 날 때 아이의 정서를 인정해주고 대화를 통해서 그 원인을 알도록 도와주게 되므로 이러한 양육을 경험한 아동은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정서 조절이 어려운 아동은 타인이 어려움이나 고통을 보이는 상황에서 불편한 정서에 압도되는 과잉각성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은 타인을 돕기보다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기 초점적(self-focused) 반응을 보일 수 있다(Davidov & Grusec, 2006). 특히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부정 정서 상태에서 편안한 정서로 회복하기 어려우며 부정적인 인지 왜곡을 발달시키게 되어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Gilman et al., 2015).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는 특히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을 효율적으로 안정시켜서 정서 조절에 도움을 주게 되고, 이는 공감반응을 위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정서표현을 수용해주는 어머니는 아동이 느끼는 다양한 정서를 편안하게 드러내고 표현하도록 도와주게 되므로 아동이 정서조절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다양한 정서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해줄 수 있다. 아동의 정서이해능력은 타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이는 불편한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데 활용될 수 있다(Eggnum et al., 2011). Brophy-Herb 등(2011)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아동의 정서표현을 수용해주는 경우 아동은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되었으며 공감능력이 높았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는 아동에게 높은 수준의 공감반응을 직접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아동에게 정서적 비계(emotional scaffolding)를 설정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Ramsden & Hubbard, 2002). 즉 이러한 태도는 정서 발달이 아직 미성숙한 유아에게 정서적 비계를 제공해주어 유아가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정서를 조절하는 정서 유능감을 발달시키도록 해주며 이는 공감의 핵심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Ramsden & Hubbard, 2002).

둘째, 공감능력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억제 간의 관계에 대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녀의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어머니 태도는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유아의 공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에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의 공감발달은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어머니는 아이가 느끼는 슬픔과 분노와 같은 정서를 부인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들은 분노 정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분노와 같은 강한 정서는 공감반응을 방해하게 된다(Roberts & Strayer, 1987).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 정서 표현을 억압하고 처벌하는 경우 아동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과도하게 부정 정서를 표출하였고(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자기 조절에도 어려움을 보였다(Eisenberg et al., 1999). 또한 어머니가 정서표현을 억제하게 되면 유아는 정서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이 결핍될 수 있다. 이는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공감반응을 위하여 어려움에 처한 타인이 보이는 정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즉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은 아동은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 및 억제 모두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정적 정서성이 유아의 공감능력 발달에서 민감성 또는 가소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차별적 민감성 모델의 가설을 지지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내면화 및 외면화 문제행동과 같은 부적응을 종속변인으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과 같은 정서 유능감을 측정하여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입증한 점에서 선행연구를 확장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Belsky와 Pluess(2009)는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제안하며 부정적 정서성을 유전적으로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외부환경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지각하고 처리하는 특성으로 보았다. Aron 등(2012)도 정보처리과정에서 민감성이 높은 아동이 보이는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아동들은 외부 정보에 대해서 매우 판별적이고(discriminatory), 세부 지향적이고(detail-oriented), 특정 부분을 기억하며 외부 사건에 대한 기억을 부호화 능력이 뛰어나다(Aron et al., 2012). 이러한 특성에 근거해 볼 때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들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정서표현수용 뿐만 아니라 억제 경험을 정보처리과정에서 심층적으로 처리하게 되므로(Moore & Depue, 2016), 이러한 양육경험이 공감능력의 발달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공감능력발달과 관련하여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가 유아의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양육환경에서는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서표현을 수용해주는 양육환경을 제공한다면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유익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부정적 정서의 수준이 높은 까다로운 기질 특성을 가진 유아들에게 정서 표현을 수용해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특히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영유아를 선별하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정서발달과 관련된 차별화된 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기질을 이해하기 위한 교사교육을 실시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 기질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공감능력 발달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가 유아의 공감발달을 설명해주는 주요 변인이나 이러한 영향력의 정도가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유아의 기질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입증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생애발달과정에서 영유아기는 외부환경의 영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Granzel & Morris, 2011).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부정적 정서성을 민감성의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이 시기에 민감성을 나타내는 잠재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다른 기질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동성은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하며 양육환경에 강하게 반응하고(Derryberry & Rothbart, 1997) 단기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는 기질 특성이다(MacDonald, 2008), 이러한 특성은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서 민감성을 반영하는 잠재적 지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검증해보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에 기초하여 4세 시기에 부정적 정서성이 민감성의 지표임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영유아기에 부정적 정서성이 민감성, 유연성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abinowitz & Drabick, 2017).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유아기 이후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서도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기질 특성이 민감성으로 작용하는지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계층을 구분하여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검증한 연구에 의하면, 중산계층 가정의 유아의 경우에는 차별적 민감성 모델이 지지되지만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에는 병적 소질-스트레스 모델을 지지하는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다(Kochanska & Kim, 2013). 따라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추후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희갑, 심숙영, 임선아 (2015). 유아용 공감 척도(EQ-YC)타당화 예비연구. *아동교육*, **24**(1), 59-80.
- 박혜원 (2012). 유아의 기질 및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예진, 신유림 (2015). 교사-유아의 친밀감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이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4), 405-412. doi:10.6115/fer.2015.032
- 존 가트맨, 남은영 (2007).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Aron, E. N., Aron, A., & Jagiellowicz, J. (2012).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 review in the light of the evolution of biological responsibi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3), 262-282. doi:10.1177/1088868311434213
- Auyeung, B., Wheelwright, S., Allison, C., Atkinson, M., Samarawickrema, N., & Baron-Cohen, S. (2009). The children's empathy quotient and systemizing quotient: Sex differences in typical development and in autism spectrum condition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9**(11), 1509-1521. doi:10.1007/s10803-009-0772-x
- Barnett, M. A., Howard, J. A., King, L. M., & Dino, G. A. (1980). Antecedents of empathy: Retrospective accounts of earl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6**(3), 361-365. doi:10.1177/014616728063004
- Belsky, J., & Pluess, M. (2009). Beyond diathesis stres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35**(6), 885-908. doi:10.1037/a0017376
- Bradley, R. H., & Corwyn, R. F. (2008). Infant temperament, parent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in first grade: A test of the differential susceptibility hypothesi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2), 124-131. doi:10.1111/j.1469-7610.2007.01829.x
- Brophy-Herb, H. E., Schiffman, R. F., Bocknek, E. L., Dupuis, S. B., Fitzgerald, H. E., Horodyski, M., et al. (2011).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in the contexts of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and contingent responsiveness in a low-income sample. *Social Development*, **20**(1), 73-92. doi:10.1111/j.1467-9507.2009.00570.x
- Plomin, R., & Buss, A. M.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Davidov,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1), 44-58. doi:10.1111/j.1467-8624.2006.00855.x
- Derryberry, D., & Rothbart, M. K. (1997). Reactive and effortful processes in the organization of tempera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4), 633-652. doi:10.1017/s0954579497001375
- Dunfield, K. A., & Kuhlmeier, V. A. (2013). Classifying prosocial behavior: Children's response to instrumental need, emotional distress, and material desire. *Child Development*, **84**(5), 1766-1776. doi:10.1111/cdev.12075

- Eggum, N. D., Eisenberg, N., Kao, K., Spinrad, T. L., Rebecca, B., Hofer, C., et al. (2011). Emotion understanding, theory of mind, and prosocial orientation: Relations over time in early childhood.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1), 4-16. doi:10.1080/17439760.2010.536776
- Eisenberg, N., & Fabes, R. A. (1990). Empathy: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 *Motivation and Emotion, 14*(2), 131-149. doi:10.1007/BF00991640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doi:10.1111/1467-8624.00037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0. doi:10.1111/1467-8624.00323
- Feldman, R., Greenbaum, C. W., & Yirmiya, N. (1999). Mother-infant affect synchrony as an antecedent of the emergence of self-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223-231. doi:10.1037/0012-1649.35.1.223
- Gilman, T. L., Latsko, M., Matt, L., Flynn, J., de la Cruz Cabrera, O., Douglas, D., et al. (2015). Variation of 5-HTTLPR and deficit in emotion regulation: A pathway to risk? *Psychology and Neuroscience, 8*(3), 397-413. doi:10.1037/pne0000017
- Granzel, B. L., & Morris, P. A. (2011). Allostasis and the developing human brain: Explicit consideration of implicit model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3*(4), 955-974. doi:10.1017/S0954579411000447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doi:10.1037/0893-3200.10.3.243
- Kiang, L., Moreno, A. J., & Robinson, J. L. (2004). Maternal preconceptions about parenting predict child temperament, maternal sensitivity, and children's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40*(6), 1081-1092. doi:10.1037/0012-1649.40.6.1081
- Kim, S., & Kochanska, G. (2012). Child temperament moderates effects of parent-child mutuality on self-regulation: A relationship-based path for emotionally negative infants. *Child Development, 83*(4), 1275-1289. doi:10.1111/j.1467-8624.2012.01778.x
- Kochanska, G., & Kim, S. (2013). Difficult temperament moderates links between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hildren's compliance and behavior problems in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4*(3), 323-332. doi:10.1111/jcpp.12002
- Lovett, B. J., & Sheffield, R. A. (2007). Affective empathy deficits in aggressive children and adolescents: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1), 1-13. doi:10.1016/j.cpr.2006.03.003
- MacDonald, K. B. (2008). Effortful control, explicit processing, and the regulation of human evolved predispositions. *Psychological Review, 115*(4), 1012-1031. doi:10.1037/a0013327

- Mesman, J., Stoel, R., Bakermans-Kranenburg, M. J., van IJzendoorn, M. H., Juffer, F., Koot, H. M., et al. (2009). Predicting growth curves of early childhood externalizing problem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of children with difficult tempera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5), 625-636. doi:10.1007/s10802-009-9298-0
- Moore, S. R., & Depue, R. A. (2016). Neurobehavioral foundation of environmental reactivity. *Psychological Bulletin*, 142(2), 107-164. doi:10.1037/bul0000028
- Pluess, M., & Belsky, J. (2010).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parenting and quality child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46(2), 379-390. doi:10.1037/a0015203
- Rabinowitz, J. A., & Drabick, D. A. G. (2017). Do children fare for better and for worse? Associations among child features and parenting with child competence and symptoms. *Developmental Review*, 45(1), 1-30. doi:10.1016/j.dr.2017.03.001
- Ramsden, S. R., & Hubbard, J. A. (2002). Family expressiveness and parental emotion coaching: Their role i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6), 657-667. doi:10.1023/A:1020819915881
- Roberts, W. L., & Strayer, J. (1987). Parents' responses to the emotional distress of their children: Relations with children's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415-422. doi:10.1037/0012-1649.23.3.415
- Roisman, G. I., Newman, D. A., Fraley, R. C., Haltigan, J. D., Groh, A. M., & Haydon, K. C. (2012). Distinguishing differential susceptibility from diathesis-stress: Recommendations for evaluating interaction effec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4(2), 389-409. doi:10.1017/S0954579412000065
- Schaffer, D. R. (2008).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사회성격 발달*(송길연, 이지연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원판, 2005).
- Slagt, M., Dubas, J. S., Dekovic, M., & van Aken, M. A. G. (2016). Differences in sensitivity to parenting depending on child temperament: A meta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2(10), 1068-1110. doi:10.1037/bul0000061
- Spinrad, T. L., & Stifter, C. A. (2006). Toddlers' empathy-related responding to distress: Predictions from negative emotionality and maternal behavior in infancy. *Infancy*, 10(2), 97-121. doi:10.1207/s15327078in1002_1
- Stoltz, S., Beijers, R., Smeekens, S., & Dekovic, M. (2015). Diathesis stress or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esting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temperament,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Social Development*, 26(4), 783-796. doi:10.1111/sode.12237
- Svetlova, M., Nichols, S. R., & Brownell, C. A. (2010). Toddlers' prosocial behavior: From instrumental to empathic to altruistic helping. *Child Development*, 81(6), 1814-1827. doi:10.1111/j.1467-8624.2010.01512.x
- Taylor, Z. E., Eisenberg, N., Spinrad, T. L., Eggum, N. D., & Sulik, M. J. (2013). The relations of ego-resiliency and emotion socialization to the development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 across early childhood. *Emotion*, 13(5), 822-831. doi:10.1037/a0032894
- Valiente, C.,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Cumberland, A., & Losoya, S. H. (2004). Prediction of children's empathy-related responding from their effortful control and parents' express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0(6), 911-926. doi:10.1037/0012-1649.40.6.911
- van Aken, C., Junger, M., Verhoeven, M., van Aken, M. A. G., & Dekovic, M. (2007). The interactive effects of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on toddlers' externalizing behavior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6(5), 553-572. doi:10.1002/icd.529
- Yaman, A., Mesman, J., van Ijzendoorn, M. H., & Bakermans-Kranenburg, M. J. (2010). Parenting and toddler aggression in second-generation immigrant families: The moderating role of child tempera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2), 208-211. doi:10.1037/a0019100

논문투고: 18.11.07

수정원고접수: 18.11.20

최종게재결정: 18.12.04